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신년하례회 열려

지난 달 6일(월) 한국언론재단 20층 국제회의장에서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신년하례회가 열렸다. 박원순 연대회의 상임위원장과 김상희 공동운영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신년하례회는 이남주 상임대표의 초청인사, 박형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의 격려사에 이어,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참석해 시민사회수준으로 정치를 개혁할 것을 밝히기도 하였다. 또한 이오경숙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와 신철영 공동위원장이 낭독한 '국민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시민사회단체는 SOFA개정과 전쟁반대, 2003년이 개혁과 변화의 한해가 될 수 있도록 불합리하고 비상식적 법제와 관행의 시정을 요구하였으며 인수위원회와 공동으로 개혁 정책 수립을 위한 대국민 토론회 개최를 제안하였다.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전국 320개 시민운동 단체의 대표적인 상설네트워크이다.

미 대사관 앞 7일간 평화 정진 기도회 열려

불교 인권위원회에서는 1월 5일(일)부터 11일(토)까지 7일간 인권법당에서 일본 대사관 앞을 지나 미 대사관 앞까지 평화정진기도회를 진행하였다. 진관, 지원 스님 등이 돌아가며 매일 아침 10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정진기도회는 효순이 미선이의 억울한 죽음을 위한 촛불시위를 언론과 경찰이 왜곡하고 있음을 우려하며 ▲살인미군을 한국법정에 세울 것 ▲SOFA개정 ▲미군으로부터 주둔비용 징수 ▲용산에서 미군기지 철수 ▲덕수궁터 미대사관 건립 백지화 등을 요구하였다.

일본대사관에서 평화정진 기도중인 진관스님.

불교인권위, 박종철 열사 인권상 제정

불교인원위는 박종철 열사 인권상을 제정하여 매년 6월항쟁 기념일에 시상할 것이라고 지난 달 6일 밝혔다. 강석주 큰스님을 상임고문으로 하는 박종철 열사 인권상 위원회에서는 그동안 불교가 사회의 일에 침묵하고 있었음을 인정하고, 1987년 6월항쟁의 도화선이 되었던 박종철 열사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추모 6주년이 되는 올해 이 상을 제정한다고 말했다.

김양무 열사 3주기 추모행사 치뤄져

지난 2000년 1월 26일 범민련간부로 한 평생 통일을 위해 살았던 김양무 선생을 기리는 추모행사가 지난 달 26일 망월동에서 열렸다. '통일애국열사 김양무 정신계승사업회'(이하 정신계승사업회)는 지난 달 20일부터 이달 8일까지를 정신계승 및 집중투쟁기간으로 정하고 6.15공동선언 이행하여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추모행사와 결의대회, 문화제를 진행하고 있다.한편 정신계승사업회에서는 김양무 통일기념관 건립금 마련을 위한 '집짓기 저금통 모으기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친일 인명사전 기초자료 친일단체 편람 나와

민족문제연구소(이사장 조문기)는 지난달 5일 일제강점기에 일본의 식민통치에 협력한 친일단체들을 총망라한 자료집인 〈일제 식민통치기구 및 협력단체 편람〉을 완성했다고 밝혔다. 이 편람에는 조선총독부를 비롯한 일제 식민지배기구와 각종 관변 · 민간단체, 문화예술단체 등의 분야에서 친일활동을 한 것으로 판명된 500여 단체가 수록됐다. 이 편람은 지난 2001년 12월 김원웅 의원 등 국회예산결산위원회 소속 의원 26명의 발의로 국회를 통과한 '한국 근대단체 · 인물 연구사업' 의 일환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교육인적자원부 예산 2억원이 투입됐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최근 이 편람을 역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사편찬위원회에 제출하는 한편, 만주 · 중국 · 일본 등에서 활동한 친일단체들을 모은 해외편 편람 제작작업에도 들어갔다고 밝혔다.

1인 시위중인 성유보 이사

여중생범대위, SOFA개정을 위한 범국민요구안 발표

미군장갑차 여중생 故 신효순, 심미선 살인사건 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여중생 범대위)는 지난 달 9일(목) 불평등한 한미SOFA 개정 범국민요구안을 1차 발표하였다. 여중생 범대위가 한미SOFA개정추진단을 구성하여 마련한 이번 요구안은 오는 2월 중순이후 국민공청회를 거쳐 최종 범국민요구안을 발표할 계획이며, 인수위원회에서도 전달될 예정이다. 범국민요구안은 ▲한미SOFA의 모범은 '한미상호방위조약' 의 개정이 전제되어야 하고 ▲한미SOFA 본 협정 및 부속문서 전면개정 ▲주한미군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의 폐지 ▲한미합동위원회 투명성 제고 등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공무중 범죄에 대한 형사재판권 문제에 대해서 접수국 관할권이 국제적으로 점차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강조하고 주한미군의 공무중 범죄에 대한 한국의 권리를 주장하였다. 이어 여중생 범대위는 다음날인 10일(금) 서울지검 기자실에서 여중생 압사사건 수사 및 재판관련 기록 일체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자료공개를 통해 사건 축소 · 은폐에 대한 의혹을 규명해야한다고 요구하였다.

민언련, 공정위 '과징금 철회' 취소 요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언론사 과징금 취소' 처분과 관련,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이사장 성유보, 이하 민언련) 등의 언론운동 시민단체들이 '무효화' 를 요구하며 1인 시위에 들어가는 등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공정위가 지난해 말 '언론사의 경영상의 어려움과 공익성' 을 내세워 각 언론사에 부과된 '과징금' 을 철회하기로 결정하자, 민언련은 성명서를 통해 "자전거 일보, 비데 일보가 판을 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최소한의 제재마저 취소한 것은 공정위의 시민시장 정상화 의지가 없는 것" 이라며 '과징금 취소 결정 철회' 를 요구했다. 또한 지난달 6일 성유보 민언련 이사장을 시작으로 6일 광화문 네거리 동화면세점 앞에서 1인 시위가 계속되었으며 '과징금 취소 결정 철회' 와 '신문고시 개정' 을 촉구하였다.

12·12, 5·18 수사기록 공개

"비공개는 위법" 판결

서울고법 특별5부는 지난달 24일 정동년 당시 광주민중항쟁연합 상임의장이 서울지검장을 상대로 낸 부작위 위법확인 청구소송에서 "검찰이 두 사건의 수사 및 재판기록을 공개할 수 없다는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이라고 판결, 12·12와 5·18사건 관련 수사기록이 공개될 수 있게 되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두 사건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역사적 평가작업이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고 판결문 등을 통해 당시 군사,외교정보 중 일부가 공개된 점으로 볼때 기록 일체를 공개하지 못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다"며, "피고는 기록공개로 국익이 현저히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나 구체적인 사항을 특정하지 않은 채 개괄적으로 이런 우려가 있는 정보가 기록에 포함돼 있다고만 항변하고 있어 이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유가협, 보상심의위에서 농성

관련법률 개정 요구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이하 유가협)는 지난 달 9일과 10일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에서 김상근 위원장과 면담을 요구하며 농성하였다. 전태일열사 어머니 이소선씨를 비롯, 8명의 민주화운동관련자 유가족 등은 정부의 보상금 결정에 대해 재심청구를 신청하고 보상심의위의 행정편의적인 보상결정에 반발하며 김상근 위원장과의 면담을 요구하여왔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28일 민주화운동 보상자로 확정된 74명에 대해 총 60억 5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바 있으나 희생 당시 월급액 기준 취업 가능한 기간을 감안한 보상방식으로 사망당시의 실제 임금가치와 물가상승률 등이 반영되지 않아 유가족들의 반발을 샀다. 유가협은 이에 ▲민주화운동 관련자 범위확대 ▲민주화보상 판단에 대한 3심제 도입 ▲보상심의위원회의 합리적 구성 ▲공정한 기준에 의한 보상금 지급 현실화 ▲위원회활동 기간 연장 인원 증가 등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의 합리적 개정을 요구하여왔다. 민주화보상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세계 인권사 보여주는 사이버 민주인권관 열려

광주시 북구가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과 민주에 관련된 역사적 자료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사이버 민주·인권관' 국제관을 구축, 지난 24일 시연회를 가졌다. 국제관은 5개 대륙 15개국 3주제로 구성돼 있으며 흑인운동, 인디언운동, 유고슬라비아 분쟁 등이 주축을 이룬 세계 인권운동사와 대륙·국가별 인권 현황, 인권운동에 기여한 주요 인물과 단체 등을 소개하고 있다.

386문화인들의 합작 뮤지컬 '수천' 공연

뮤직컬 〈대륙의 여인 수천(守天)〉이 지난 달 23일부터 26일까지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예술극장 대극장에서 공연되었다. '땅은 스스로 경계를 긋지 않는다'는 고구려인의 담대한 기상을 담은 내용으로 김정환 연출, 신동호 대본, 안치환과 윤민석 음악, 이상인 영상제작, 임수경 홍보 등 386세대 문화인들이 함께한 작품이다. 가극단 금강의 배우들이 역을 맡아 공연한 '수천'은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이 2003년 남북문화교류 공연작으로 선정한 바 있다.

두산중공업 노조간부 배달호씨 분신자살

지난 달 9일(목) 오전 6시 30분 경 경남 창원시 소재 두산중공업 노조간부 배달호(50)씨가 분신자살했다. 이른 아침 출근해, 자신의 승용차안에 유서를 남기고 냉각탑 옆에서 분신한 배씨는 노조대의원으로 활동하였으며 장기파업 등으로 구속된 뒤 회사 측으로부터 정직 3개월 처분을 받고 지난 달 18일부터 다시 근무해왔으나 사측에 의해 재산과 임금이 가압류된 상태였다. 배씨는 유서에서 두산중공업의 노조말살책과 가진자들만을 옹호하는 법에 대해 울분을 토했다. '노동열사 고 배달호동지 분신사망대책위'는 10일 사내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사건에 대한 두산 박용성 회장의 공개사과 및 대한상의회장 퇴진, 노조 탄압 중단과 현안문제 해결 등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노동계가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히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두산중공업은 2000년 12월 자산 3조 7천억원에 이르는 한국중공업을 비롯한 19개 자회사를 합해 총 5조원에 달하는 자산을 10분의 1 가격인 3천57억원에 인수하는 특혜시비 끝에 탄생하였으며 인수 즉시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1천2백여명에 대해 명예퇴직을 실시하면서 노사대립이 극에 달했다. 또한 단체협약을 거부, 대기업 사상 초유의 '단체협약 자동해지'까지 밀어붙였다. 사측의 조치에 두산중공업 노조는 장기에 걸친 노조원 구속, 월급 가압류 등 투쟁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에 몰린 몰려왔었다.

삼일문 현판 독립선언문체로 복원예정

서울 종로구 종로2가 탑골공원 정문 현판이 한 민족단체에 의해 강제 철거된 지 1년여만에 다시 내걸린다. 서울시는 한국민족정기소생회가 지난 2001년 11월 친일행적이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글씨라며 떼어낸 탑골공원 현판 자리에 독립선언서에서 채자(採字)한 '삼일문' 세 글자를 새긴 현판을 새로 만들기로 했다고 지난달 4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현판복원과 관련, 독립운동단체들이 추천한 서예가의 글씨로 복원하는 방법, 국민공모 방식, 현판 없이 그대로 두는 방법 등을 여러 가지를 논의했으나 최근 열린 시 문화재위원회에서 독립선언서 채자방식으로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시는 현판 및 글씨의 크기, 색깔 등 세부적인 사항이 결정되는 대로 문화재청으로부터 현상변경허가를 받아 현판 제작에 들어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3·1독립선언서 낭독지인 탑골공원 정문 현판을 빨리 복원하지 못한데 대해 독립운동단체와 시민들의 불만이 많았던 게 사실"이라며 "늦어도 올 3·1절 이전까지는 현판 복원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1세기 민중음악의 새길 찾기 포럼 열려

민중가요 비평과 전망을 위한 월례포럼 '21세기 민중음악의 새길찾기'가 지난 달 22일(수)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대강당에서 민족음악연구소 주최로 열렸다. 한국민족음악인협회가 주관하고 한국문화예술진흥원가 후원한 이번 월례포럼은 김창남 성공회대 교수가 사회를 맡았으며 대중음악평론가 이영미씨가 '민중음악의 역사적 전개과정과 과제'를 주제로, 신동호 시인이 '21세기 민족예술운동의 미학적 대안'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 뒤 토론이 진행되었다.

박종철 열사 16주기 추도식 및 추모문화제

김시자 열사 7주기 추모제 마석모란공원에서 열려

지난 달 12일(일) 마석 모란공원에서는 박종철기념사업회 주최로 16주기 추도식이 진행되었다. 이 자리에는 열사의 부친 박정기님을 비롯한 50여명의 민가협, 유가협 회원들과 열사의 선후배들이 참석하였다. 이날 오후 서울대 문화관 중강당에서는 추모문화제가 유가족 및 학생, 시민단체 회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또한 14일 오전 조계사에서 열린 추모제에는 열사의 부친 박정기씨와 박형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한상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진관 스님과 전국민족민주 유가족 · 민주화 실천가족 협의회 등 재야단체 회원 150여명이 참석해 고인을 추모했다. 특히 이날 추모제에는 당시 수사를 맡았던 검찰간부가 나와 민주화운동과 인권의 신장을 위해, 검찰후배들에게 당시 사실을 전하고 싶다고 밝히며 당시의 긴박했던 상황을 증언하기도 했다.

한편 김시자 열사 7주기 추모식이 지난 12일 박종철 열사 추모식이 열리기 한 시간 쯤 전 마석 모란공원에서 열렸다. 김시자 열사는 한국전력부속병원에 입사하여 한국전력 노조민주화를 위해 힘쓰다 부당한 징계에 맞서 분신하였다. 한일병원을 비롯한 전력산업노조 및 공공부문 노조원 100여명이 열사의 뜻을 기렸다.

문익환 목사 9주기 추모식

지난 1월 18일(토) 마석모란공원에서는 늦봄 문익환 목사 9주기 추모식이 열렸다. 통일맞이 이사장을 겸하고 있는 이재정 의원을 비롯하여 유가족, 고인의 뜻을 따르는 70여명의 추모객이 모였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박형규 이사장은 추모사를 통해 "민주화투사, 통일일꾼으로 젊음을 살랐던 겨레의 큰 스승 문익환 목사가 떠난지 벌써 아홉해가 되었다. 하지만 문 목사님은 이미 우리들 마음에 부활해 있다며 민족통일과 민주주의의 이상을 위해 더욱 분투하자"고 말했다. 유족 대표로 막내아들 문성근씨는 "지난 대선에서 정치개혁과 국민통합의 기치를 든 노무현 대통령 당선되어 아버님 앞에 면목이 선다"며 1987년 6월항쟁의 정신과 통일운동에의 꿈을 이루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전했다. 한편 통일맞이에서는 이날 12시 종로5가 서울부페에서 진행된 신년회에서 10주기행사의 대강을 밝혔다. 통일맞이에 따르면 남과 북, 해외와 함께하는 10주기 프로젝트를 기획추진하고 남북교류사업의 창구로 민족공동체복원 프로그램을 진행, 늦봄 사상연구 학술프로그램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황인철 변호사 10주기 추모제

70, 80년대에 주요시국사건에 관여해 민주화운동과 인권신장에 크게 기여한 황인철 변호사의 10주기 추모제가 열렸다. 천주교인권위원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주관단체는 지난 달 20일 천주교 수원교구 안성묘원에서 묘소를 참배했다. 또한 이날 6시 명동성당 별관에서 지인들과 유족 등 100여명이 모여 10주기추모미사 및 추모제를 진행하였다.

제 3회 대전충남 민족민주열사 · 희생자 합동추모제 열려

지난 달 17일 오후 7시 대전의 기독교연합봉사회관에서 최덕수, 윤용하 열사 등을 추모하기 위한 3회 대전충남민족민주열사 · 희생자 합동추모제가 열렸다. 민주화운동정신계승대전충남연대, 대전민가협양심수후원회 등 20여 단체가 연대해 구성한 준비위원회가 주최한 합동추모제에서 김용우 준비위원장(대전충남민언련 상임의장)은 "먼저 가신 열사 · 희생자들의 정신을 계승하여 범국민 추모사업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통일과 민주화실현의 길"이라고 강조하였으며 참가자들과 함께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 석방 등 4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시민 · 사회종교단체, 새 정부에 양심수 석방 요구

시민 · 사회 · 종교단체들이 양심수석방, 정치수배해제, 국가보안법철폐 등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시민 · 사회 · 종교단체 대표자들은 지난 달 8일 오전 11시경 향린교회에서 집행책임자 대책회의를 열고 노무현 대통령당선자와 정권인수위에 양심수 석방, 정치수배해제, 국가보안법철폐, 범민련 · 한총련 이적단체규정철회, 보안관찰법폐지를 요구하기로 하였으며 16일은 '양심수석방, 수배해제 및 대사면을 위한 시민사회종교단체 기자회견'을 갖고 "양심수 석방이 국민통합과 민주주의 발전, 인권신장을 위한 첫 출발"이라며 "모든 양심수의 사면, 복권이 새 정부의 첫 과제로 해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여성연합 제17차 정기총회

여성연합은 지난 1월 8일과 9일 숭실대학교 한경직 기념관에서 6개 지부27개 회원단체의 대의원 및 참관인 139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17차 정기총회를 열었다. 제17차 정기총회는 첫째 날은 정책토의,

둘째 날은 총회 본회의로 이루어졌다. 총회 본회의는 이오경숙 의장(여성연합 상임대표)의 사회로 2002년 사업평가와 결산보고, 2003년 사업계획과 예산에 대한 토의가 이루어졌고 임원선출과 모범회원단체 시상으로 진행되었다. 여성연합은 2003년 3대 핵심 주요사업 과제로 ▲성매매방지법 제정운동 ▲성인지적 예산정책 수립요구운동 ▲한반도 위기예방 및 평화실현을 위한 활동을 선정하였다.

삼청교육대백서 출간

'삼청교육대'의 입안과정과 시행, 피해사례 등이 담긴 〈삼청교육대백서〉 하편이 지난달 출간됐다. 지난해 1월 상편 발간에 이어 출간된 이번 백서는 삼청교육대인권운동연합(삼인련)의 전영순(64) 대표(사진)의 열정적인 노력의 결과로 삼청교육대가 운용되던 지난 80년과 81년 '수련생' 3만9736명이 '교육' 받은 부대와 인원 등 최초로 공개되는 자료들도 있다.

전세계에서 반전시위 열려

지난 달 18일 워싱턴, 샌프란시스코를 비롯 전 세계에서 전쟁반대를 외치는 시위가 열렸다. 워싱턴에서는 이날 마틴 루터 킹 목사 추모행사를 맞아 모인 수십만의 인파가 이라크와의 전쟁반대를 외쳤으며 샌프란시스코에서도 약 삼십만 인파가 반전평화를 외치며 거리행진을 벌였다. 이외에도 미국 주요 도시와 함께 캐나다 등 세계 각지에서 부시 행정부의 대 이라크 전쟁추진을 비난하는 집회가 열렸다.한편 이달 15일, 미국의 대 이라크 전쟁선포에 대해 미국, 유럽 등 전 세계적 대규모 반전시위가 있을 예정이다.

세계사회포럼 개막

지난 23일부터 28일까지 브라질 남부 항구도시 포르토 알레그레에서 '또다른 세상도 가능하다'는 캐치프레이즈로 세계사회포럼이 열렸다. 올해의 중심 이슈는 ▲민주주의와 지속가능한 발전 ▲가치와 인권, 다양성, 평등 ▲미디어와 대항문화 ▲정치권력과 시민사회 ▲민주적 세계질서와 반전 · 평화 투쟁이다.

민주화단체, 명예회복법 개정 촉구

52개 민주화운동 관련단체로 구성된 `민주화운동정신계승 국민연대'는 지난 달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이하 명예회복법)의 개정과 보상심의위원회의 민주적 운영을 촉구했다.계승연대는 "보상심의위 운영이 일체 비공개로 운영되는데다 명예회복법에 따른 보상금 지급도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천차만별이어서 문제가 많다"며 "보상심의위원회심의.의결내용을 공개하고 법을 개정해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평가에 합당한 명예회복 조치와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계승연대는 이를 위해 이날부터 서울 종로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앞에서 참가단체 회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1인 시위에 들어갔다.

통합적 생명윤리법 제정촉구를 위한 100인 선언

생명윤리법 공동캠페인단(이하 공동캠페인단)은 지난 달 23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1층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적 생명윤리법 제정을 촉구하는 사회 각계인사 100인의 선언문을 발표하였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박영숙 위원장, 여성민우회 김상희 상임대표,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박병상 운영위원, 진관 스님 등이 참석하였다. 공동캠페인단은 100인 선언을 통해 인간복제금지 뿐만 아니라 인간배아 보호분야, 유전자검사 및 유전정보보호분야, 유전자검사 분야 등에 대한 관리나 규제까지 포괄하는 통합적인 생명윤리법의 제정을 촉구하였으며 배아복제의 예외없는 금지를 주장하였다.

〈부산민주공원〉

"북핵 진단과 해법…" 주제 심포지움 개최

부산민주공원과 부산시국회의, 부산통일연대가 공동 주최하고 민주공원 부설 민주주의 사회연구소가 주관한 학술심포지움이 지난 29일 민주공원에서 열렸다. '북핵 진단과 해법 그리고 시민사회운동의 과제'를 주제로 한 심포지움에서는 영산대 김홍수 교수의 발제에 이어, 창원대 도진순 교수, 부산일보 이춘우 논설위원, 안호국 부산연합 정치위원장의 토론이 진행되었다.

〈5.18기념재단〉

5.18기념재단 6대 이사장 및 상임이사 선출

5.18기념재단은 지난 달 20일 5.18기념문화관 소회의실에서 제5기 1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6대 이사장에 강신석 이사(현 광주 종교인평화회의 상임공동의장, 무진교회 목사)를 만장일치로 추대하고, 상임이사에 차명석 전 4기 상임이사를 선출하였다.

• 강신석 : 1938년 8월 광주출생.
현 광주무진교회 목사.
민주화를 위한 광주YWCA기도회 사건으로 투옥.
5.18민중항쟁관련 투옥.
5.18광주민중항쟁기념사업 추진위원회 회장.
5.18기념재단 이사.

• 차명석 : 1954년 7월 광주출생.
전남대 총학생회 활동.
5.18민중항쟁관련 투옥.
5.18기념재단 초대사무처장 겸 이사.
5.18기념재단 상임이사.

2월 게시판

인권운동연구소 2기 연구원 모집

인권운동사랑방 부설 인권운동연구소에서는 제2기 객원연구원 및 비상임연구원 공개모집한다. 1999년 12월 설립하여 진보적 인권이론을 세워왔던 인권운동연구소는 이달 10일부터 제2기 연구과정을 시작한다.

· 개강 : 2월 10일(월)

· 문의 : 02-741-5363(이창조), 02-3676-1301(서준식)

노무현 정부 추진 개혁과제 토론회

참여연대는 1월 20일부터 시작해서 이달 7일까지 '노무현 정부가 추진해야 할 개혁과제'를 주제로 모두 여덟차례 토론회를 연다. 장소는 세종문화회관 컨퍼런스홀이며 시민단체, 학계, 여야 정치인, 관련부처 공직자들이 함께해 분야별 연속토론회를 갖는다.

■ 2월 토론회 일정

● 제6토론 : 사회복지-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적 안전망 만들기(2월4일)

● 제7토론 : 언론개혁-여론독과점 바로잡고 공정한 언론시장 질서 만들기(2월6일)

● 제8토론 : 종합-노무현정부 국정운영기조, 초기개혁이 정권의 성패를 가른다(2월7일)